

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인문사회학육성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귀국보고

1. 이름 : 김지선
2. 소속 : 동경대학대학원인문사회계연구과
3. 파견형태 : H24년도여름학기개인파견 (PD)
4. 연구과제명 : 식민지 조선의 방악가의 음악활동기록수집
5. 파견처에서의 활동
 - (1) 파견처의 기본정보
나라 : 한국
도시명 : 서울
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음악대학동양음악연구소
접촉한 주된 연구자명 : 황준연교수

- (2) 파견기간
출발일 : 2012년7월1일
귀국일 : 2012년10월1일
총일수 : 92일

6. 주된 연구성과

(1) 당초의 연구계획의 개요

한국파견은 식민지 조선의 방악가들의 음악활동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식민지조선은 조선인만의 사회가 아닌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주한 일본인의 사회도 존재하였다. 그와 함께 재조선에는 일본인 사회를 둘러싼 음악환경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방악도 포함되었다. 연회에서는 삼교구등의 방악이 연주되었고 마츠리에서도 일본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또한 여학생과 부인들은 고토를 배우는 등 재조선일본인사회에서도 일본과 같은 음악환경이 형성되어있었다. 이런 근거를 조사하기위해 한국파견을 하였다.

(2) 실제 달성한 성과

한국파견에 의해 서울대학교(동양음악연구소)와 한국국립중앙도서관등에서 신문, 잡지등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있었던 방악의 연주기록과 방악관련기사를 찾아 당시의 조선에서의 방악의 실태해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조사에 의해 방악은 재조선일본인의 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교구(고토, 샤미센, 사쿠하치)의 공연과 가부키, 노가쿠까지 공연되었고, 특히, 사쿠하치의 여성주자는 흔치 않았던 당시에 스즈키 후지에(鈴木藤枝, 일본여자대학출신)에 의해 조선에서 연주회(1933년9월26일 하세가와정공회당에서)가 열리는 등 조선에서

의 활동이 일본보다 열려있었다. 인천에 존재하였던 가부키좌는 가부키공연만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연극과 인천부민대회등 당시에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회관과 시민들의 집합장소로 이용되어 가부키좌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직장안에서는 방악부가 결성되서 연주회를 여는 경우도 있었다(철도국우회관방악부). 그리고 평양기생학교에서는 조선악 뿐만 아니라 일본의 샤미센도 교수되어, 연회에서의 음악의 판도가 조선악 뿐만 아니라 방악에 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전시체제가 되면 방악은 위문공연등이 개최되어 공연의 수익금은 위문금으로도 쓰였다. 이번조사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방악은 일본에서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3) 금후의 연구전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식민지조선에서의 방악」이라는 테마로 외지에서의 방악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싶다. 실제 재조선일본인의 생활 속의 방악은 어떤 존재였고 외지에서는 어떻게 변모하여 어떤식으로 향유되었는지 등 그 실태연구에 접근하고 싶다. 또한 방악이 일본인 사회 뿐만 아니라 조선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존재되었는지를 찾아 식민지가 아니고는 경험하지 못 할 문화전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다. 이것으로 인해 재조선인 일본인사회의 음악의 단면의 실태가 명확하게 되어 일한근대음악사의 폭을 한층 넓히고 싶다.